metro

‘이재용 삼성’ 역풍 시작

이학수법 본지 설문 결과 의원 114명 찬성… 오늘 공청회

야당만 모두 합세해도 과반 근접… 입법 땐 타격 불가피

이영애 ‘사임당’으로 11년만에 컴백

태진아 도박죄 처벌 받나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하세요

'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해 김 대표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피해액이 크게는 한 번에 1000만원에 이르러 주의가 요망된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 지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 송금한 분들이 여럿 나왔다"며 "아마 저한테 확인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당부한다)"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예전에 몇 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 와서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했고, 그분들이 '그런 전화가 왔었지만 속지 않았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공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부산에 갔더니 (사기범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돕는데 참여하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서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고 해 (피해 사실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뉴시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김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좋은 일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확인전화를 해 와 두 달 전쯤에 부산지방경찰청에 신고했지만 수사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뜬구름 잡는 제1야당

현행 기여·지급률에 α·β만 덧붙인 공무원연금안
α·β 구체적 수치 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 몫" 설명
텅빈 수치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 커" 강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줄일지 구체적인 수치를 비워둔 채 윤곽만 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5일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28일이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뜬구름 잡는 식의 제안을 개혁안이라고 포장해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각각 7%+알파(α) 1.9%-베타(β)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에 α와 β를 덧붙인 데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은 α와 β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며 "여 모형에 따라 추계된 우리의 안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몫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텅 빈 제언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의 안이 "기여율 8~10%, 지급률 1.7~1.9%가 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정추계를 해보니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반쪽연금 보기를 선언하고 남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α니 β니 무슨 수학시간 같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을 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노조 측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오늘 새정치연합이 발표했는데 이 말은 그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hyeong@metroseoul.co.kr

추락 獨항공기 한국인 피해자 없어

외교부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사고와 관련, 25일 오전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공관들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한국시간 오전 6시 기준) 우리 국민 피해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기 노선을 포함해 추락 이후 여러 상황을 볼 때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던 중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했으며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현지 당국은 파악했다. /정윤아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세무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건물 앞에서 카메라 기자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결혼할 동성 커플 찾습니다

metro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인권 재단(FDH)이 대규모 합동 동성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어 화제다. 23일(현지시간) 메트로 푸에르토리코는 FDH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올해 푸에르토리코 섬에서 결혼식을 올릴 동성 커플을 찾는 광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올해 안에 푸에르토리코 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해 말 뉴욕을 시작으로 20여개 주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물결이 일 때에도 푸에르토리코 연방 지방법원은 반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 상원의원 라몬 루이스 니에베스는 "불확실한 동성 결혼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 결혼 문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다.

Buscan parejas guys que se quieran casar en la isla

현재 푸에르토리코 지역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는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서이기자 mdsun217@

한전 관계자 '감사원 감찰관' 성접대 협의

감사원 감찰관, 강남 고급 요정서 호화 저녁식사 후 성매매

지난 19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감사원 공무원들과 1차 요정에서 동석한 사람은 한국전력과 계열사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한전 계열사 부장 A모씨는 한전의 팀 차장급 B모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원 감사담당관실 4급 공무원 김모씨와 같은 부서 5급 김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급 요정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00여 평의 넓이의 이 요정은 한 명당 저녁 식사 가격이 최소 4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 간부 2명은 이 요정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약 500m 떨어진 모텔로 이동한 후 이 곳에서 요정소속의 삼대 여성 2명을 다시 만나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감사원 공무원들은 모텔 현장적발 후 경찰 조사에서 거짓게 합의하며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분을 "자영업자"라고 둘러댔지만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탄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전과 계열사 직원들이 이날 감사원 공무원 2명을 접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접대를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는 1차 저녁장소의 요정의 영업담당 사장 등 관계자들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감사원 직원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성매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술을 같이 마신 건 인정하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23일 이들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들이 속해있던 감찰담당관실에 조사를 맡기는 대신, 특별조사국 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윤아기자 yoona@

'별 넷 vs 별 셋' 해군수뇌부 整軍 힘겨루기

'캐디에 춤·노래 강요' 해군 중장 '해임 버티기'

정호섭 참모총장이 군 골프장 캐디에게 노래와 춤을 강요한 해군 중장(별 셋)에게 보직해임을 종용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별 넷의 해군 대장이다. 해군이 연이은 비리 악재에 정군(整軍)을 단행하려는 정 총장에 한 계급 아래의 해군 장성이 맞서는 모양새다. 정군을 둘러싼 해군 수뇌부의 힘겨루기인 셈이다.

해군은 25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다져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정 총장은 A 중장에 대해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중장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캐디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 총장은 A 중장이 과거 해군본부 근무시절 부하 여군을 성희롱 했던 전력까지 들춰내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대응은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성관련 범죄와 해군의 방산비리로 악화된 해군의 이미지손상과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거취문제를 두고 A 중장과 정 총장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은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됐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은명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C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A 중장과 B 준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younа@metroseoul.co.kr

지난달 27일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동시에 취기된 전 해군참모총장은 이임식을 갖고 군복을 벗었다. 황 전 총장은 현재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자료, 공람 없이 삭제"

"이메일 정리하다 발견… 요청자료 아니었다"

청와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자료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나 공람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의 내부자료가 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통해 청와대 등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었고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는 게 이름이 거명된 청와대 부이사관의 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께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 이당·해양수산부 검찰 등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조위 임시지원단에 파견된 해수부 직원이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주간 업무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해수부 공무원, 방배경찰서 등 보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문재인 대표 총기체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5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제3115부대를 방문, 총기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표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체어 댄스" 따라 해보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하나로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한 뒤 '체어 댄스'를 따라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옥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실시된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7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반대입장에서 선회해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논란과 관련해 "박씨의 구구한 변명을 다 믿더라도 그가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사, 외압에 굴복하고 권력과 타협한 검사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제단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고문 공범의 존재를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사제단의 폭로 이후 2차 수사팀을 꾸려 공범을 추가 기소했다. /석대성기자 [illegible]

경기도, 결핵관리 시범사업 안산 거주 외국인 대상 진행

경기도가 올해부터 외국인 결핵관리 시범사업을 하는 등 결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5년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 외국인 결핵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거주 외국인 49만여명 가운데 결핵환자는 773명(2014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안산지역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핵 교육, 취업전 조기검진, 결핵환자 발생 사업장 근로자 전수 결핵검진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과 희망자에 한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한다.

이같은 결핵관리 사업을 위해 지난해 52억원이던 결핵예방사업비를 올해 68억원으로 늘리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간호사 16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기도의 결핵관리 컨트롤타워는 오는 7월 개소하는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부속의원이 한다. 경기도 결핵 환자 발생은 2012년 7818명, 2013년 7523명, 2014년 7241명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Tuberculosis supervision demonstration project for Foreigners in Kyung-gi and An-san

Kyung-gi province has decided to enforce the supervision of Tuberculosis starting this year by running a Tuberculosis supervision demonstration project for foreigners. According to Kyung-gi Tuberculosis supervisi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in 2015, the demonstration project will first start in An-san where the majority of foreigners live in.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re are 773 Tuberculosis patients among 490 thousand foreigners living in the province (end of 2014). Kyung-gi province will proceed Tuberculosis checkup, pre-examination before employment, Tuberculosis education for foreigners in An-san, Tuberculosis prevention education and Dormant Tuberculosis infection examination for high school freshmen will start from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For this, last year's Tuberculosis prevention project budget which was 5.2 billion won has gone up to 6.8billion won and positioned 16 more nurses in health centers and medical organizations.

Kyung-gi has given the authority to Korea Tuberculosis Association branch affiliated medical center to play the role of Tuberculosis supervision control tower. The rate of Tuberculosis patients are decreasing compared to 2012 7818 people, 2013-7523 people and 2014-7241 people.

/해고외국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과정)

PAGODA

아베, 자위대 '우리 軍' 발언 논란

헌법 개정 속내 드러낸 것?

아베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교도 제공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우리군(軍)'이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외신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국 군대들과의 합동 훈련은 '우리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이슈화된 자위대와 타국 군대 간 합동 훈련의 목적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번의 이번 발언에 대해 '자위대는 군대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자국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지닌 조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의 여론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개헌에 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베 총리가 2012년 "헌법을 바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자"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자위대에 관해 '우리 군'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제까지 쌓아 올린 논의를 뒤집는 이야기"라며 "새로운 안전보장체제의 골격이 여당에서 합의돼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간사장은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의 여론 조사 결과 모든 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질렀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김세미기자 ress@217

군사대국 야욕 드러내는 일본 일본 해상자위대가 25일 정식 취역한 호위함 '이즈모'가 25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다. 이즈모는 길이 248m, 폭 38m,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 규모다. 이즈모는 헬기 5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다. /연합뉴스

獨 할테른 학생 16명도 사고기 탑승 24일 밤(현지시간) 독일 서부 할테른의 제육관 앞 촛불 추모단에서 한 소녀가 이날 오전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에 추락한 여객기로 숨져간 친구들을 애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순항고도 진입 후 급강하 왜?

獨여객기 추락 원인 논란 당국 블랙박스 분석중

조난 신호도 없이 8분 만에 추락하다니…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저가항공 저먼윙스 여객기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P·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저먼윙스 9525편은 2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분 스페인 바르셀로나공항에서 이륙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했다. 10시 45분 순항고도인 3만8000피트까지 무난히 도달하면서 순조롭게 비행하는 듯했다. 하지만 여객기는 1분 만에 갑작스레 급강하를 시작했다. 강하는 8분간 계속됐지만 여객기 조종사는 조난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10시 53분 여객기와 교신이 끊긴 프랑스 항공당국이 조난신호를 냈지만 여객기는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순항고도에 다다른 항공기의 추락사고는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조종사가 감압으로 강하를 시도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기체 부식 등으로 인한 급감압이 발생, 조종사가 숨 쉴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1만 피트 아래로 기체를 강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보잉사 엔지니어였던 토드 커티스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저먼윙스 여객기의 강하 과정이 급감압 상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시스템 고장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와 같은 에어버스 기종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2009년 비행 속도를 잘못 측정해 폭풍우 속에서 대서양에 추락했다. 루프트한자 에어버스 기종도 지난해 11월 자동조종장치의 결함으로 1분에 4000피트 급하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종사가 강하 과정에서 알프스 산악지대의 고도 계산을 잘못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 중이다.

◆독일 고교생·오페라 가수도 희생

사고로 숨진 승객들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150명의 희생자 중 독일과 스페인 국적자가 67명과 45명으로 나타났고 호주, 일본,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인 각 2명과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덴마크인이 각 1명씩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독일 북서부 마을인 할테른 암제에 있는 요제프 쾨니히 고교에 다니는 10학년생 16명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바르셀로나 인근 학교에서 일주일 기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도 희생됐다.

오페라 공연을 하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찾았던 성악가 올레그 브리야크와 마리아 라드너도 희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국명기자 kmine@metroseoul.co.kr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

서민엔 '그림의 떡'… 대상 확대 촉구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에서 기존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상호금융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원리금 균등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논의를 더 해야 하겠지만 현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실제 출시 이틀째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16개 은행 본·지점에서 접수된 대출은 9074건으로 1조197억원의 승인이 이뤄져 누적으로 4만5543건, 승인액은 5조836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연간 한도 20조원을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원씩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월분으로 배정했던 5조원이 사실상 하루 만에 재워짐에 따라 4월 배정액(5조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권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의 월간 한도가 5조원이어서 일찍 소진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월 한도에 구애없이 유동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연간 한도 20조원의 증액 여부는 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소진 이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마련부터 판매한랑, 가계부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전환 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 상시점검반, 금감원에 현장점검반을 각각 둬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도 보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아란기자 a.lyeon0322@metroseoul.co.kr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개혁에 빠진 임종룡

민간기구 구성·현장회의 등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둠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여든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동시에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이 다뤄지는 형태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 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자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 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짚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 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에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신한금융 정기주총 "고비용구조 개선할 것" 신한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제14기 주주총회 및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재무제표 결산과 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銀 "혁신 아이디어 반영… 차기 리더 선발"

외환은, 주니어보드 발대식

외환은행은 지난 24일 혁신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KEB Junior Board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본점부서와 영업점의 실무자급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는 변화와 혁신의 기업문화 정착과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경영 현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업무 현장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1년 단위로 활동하는 영리더들을 선정해왔다. 주니어보드는 영리더 중에서 34명이 선발됐다.

김한조 행장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여러 주제들이 곧 우리 외환은행의 정책 방향이 될 수 있고, 향후에 은행이 나아갈 길을 비추게 될 것"이라면서 "논의된 결과들은 기감 없이 전달받아 여기 자리한 여러 임원들과 함께 우리 외환은행의 정책 방향에 삼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반기마다 400여명의 KEB 영리더 전원이 모여 은행장과 임원들과 경영 현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이는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어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표
사장 겸 발행인	김종혁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6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서울특별시 가00036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눈앞… 과제는 '산적'

소비위축·국내 총 투자율도 제자리
가계부채 증가 속도 경제성장 2배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2만8000 달러를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의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늘어나지 않는 투자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180 달러로 전년보다 7.6%(2001 달러) 증가했다.

앞서 우리나라 1인당 GNI은 2011년 2만4302 달러, 2012년 2만4696 달러, 2013년 2만6179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이르면 올해 통계치에서는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하고 12년 만에 2만 달러에 처음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이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1만5786 달러로 전년보다 1081 달러 늘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831 달러, 올해 경제성장률 3.6%, 104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전제로 한국이 올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마감과 낮은 실질 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지난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은 8.0% 늘었다. 환율로만 3.8%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환율 효과를 빼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GNI 증가율은 1인당 GNI 증가율의 절반인 3.8% 느는데 그쳤다. 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3.3%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분기 실질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1.1%에서 2분기 0.5%, 3분기 0.8%에 이어 4분기에는 0.3%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0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한은도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췄고, 추가 하향 조정도 예고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국내 경기에 '뇌관'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 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64.2%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부채 비율(133.5%)보다 31%포인트 높고 증가율도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

반면 국내 투자와 개인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은 29.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 기간 총저축률은 36.1%로 전년(43.1%)보다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1인당 GN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국내외 환율경쟁과 내수시장 성장세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는 힘들다"며 "국내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희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신한은행 저소득 가정 위한 '행복한 국수 나눔' 실시 신한은행은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행복한 국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임직원들이 직접 국수 가락을 뽑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M포인트로 여행 떠나세요"

50% 포인트로 결제

현대카드가 여행 상품 구매시 M포인트 혜택을 주는 '50% M포인트 스페셜-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M포인트는 카드 사용시 사용액의 0.5~2.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객은 해외 항공권과 호텔, 면세점 결제 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카드 프리비아(PRIVIA)와 인터파크 투어, 호텔패스, 롯데면세점이 참여한다.

우선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인터파크투어'에서 해외 항공권을 결제하는 고객은 결제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프리비아(PRIVIA)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해외 항공권과 해외 호텔,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시 카드 할인(7~10%)과 50% M포인트 사용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호텔패스'에서는 내달 15일까지 50% M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롯데면세점 오프라인 가경점에서도 이용금액의 절반을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내달 19일까지 호텔패스의 사이트인 '여고다닷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접속한 고객은 10%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정영선기자 ansys@

女 노후생활비 2억7000만원… 男보다 5000만원 많아

65세 이후 기대수명까지 월 100만원의 생활비가 소요된다고 가정할때 여성의 은퇴후 생활비가 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성보다 5000만원 많은 액수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긴 반면 가사나 양육으로 경제력은 이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25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이하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여성의 노후준비가 특별한 이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성별 연금격차는 58.7%로, EU 회원국(평균 39%)보다 월등히 높다.

성별 연금격차가 58.7%란 남성 평균연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이 41.3만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여성빈곤율도 높다. 65세 이상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 남성노인(41.8%)보다도 5.4%p 높은 수치다.

은퇴연구소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 리스크로 ▲수명 ▲의료·간병비 ▲이혼·사별 ▲열악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0세만 넘기기 90세까지 살 확률은 각각 15.9%, 34.1%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여성의 의료·간병비도 남성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은 남성이 68.79세, 여성이 72.48세로, 기대수명과의 차이는 남성이 8.88년, 여성이 11.9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여성의 1인당 생애 의료비는 1억2332만원으로 남성(1억177만원)보다 2000여만원 많다.

또 여성은 배우자와의 수명차이와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약화로 가족의 간병을 받기가 어려워 노후에 더 많은 간병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원의 수발을 받는 비율(68.6%)이 남성(77.9%)보다 적고, 외부서비스를 받는 비율(15.4%)도 남성(4.6%)이 높았다.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노후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 비혼, 황혼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노후를 홀로 맞이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은퇴연구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첫 취업부터 연령단계별로 노후준비 계획 수립 ▲부부공동 노후자금 마련과 남편사후 여성 본인만의 노후자금 마련 계획 수립 ▲이혼 등 가정해체에 대비한 지식습득 등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회원국의 성별 임금격차

자료: OECD(2013) Employment Outlook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제공

기대수명 긴 반면, 의료·간병비 높고 경제력 못미쳐

먼저 직장경력과 관련해서는 취업과 전직 여부 판단, 취업 중 육아방법 결정, 은퇴 시기결정 등 세 가지 의사결정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취직과 전직의 경우 임금수준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취업기간 중 출산·육아와 관련 장기휴직보다는 근무시간 축소, 유연근무제 즐장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저축과 투자 체계를 점검하고, 보험에서 보장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주택대출 상환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50대에는 본격적인 노후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 단기간 내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의 준비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김혜선기자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한은 5~6월께 금리 추가인하 예상"

유진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5~6월 중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저성장·저물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국이 적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 한은도 5~6월께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서 저점을 형성한 후 반등하겠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임금과 고용을 늘려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자비용을 줄여 소비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머징 국가에서 추가적인 완화정책이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수의 더딘 회복, 수출 불확실성, 0%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며 "경상수지 악화로 금융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저성장·저물가 상황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의 높은 재정 건전성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시도 이외의 시급 이벤트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한편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목표로 ▲잘 맞추는 리서치 ▲깊게 분석하는 리서치 ▲가장 먼저 제시하는 리서치를 제시했다.

변 센터장은 "리서치 보고서는 넘쳐나지만 살아 있는 분석은 줄어들고 있다"며 "정교한 리서치 자료로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창의적인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분석해 가장 먼저 제시하는 리서치로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배기자 boba@

코스닥, 6년 9개월만에 650선 돌파

코스닥지수가 6년 9개월 만에 650선을 돌파했다.

25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대비 9.19포인트(1.43%) 오른 651.06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2일(651.11) 이후 6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1억원, 73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898억원 순매도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산성엘앤에스가 14.84% 급등하면서 종이 목재 업종의 8.35% 상승을 이끌었다. 대장주 셀트리온과 경남제약, 대화제약, 메디바이오메드 등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제약업종도 6.01% 급등했다.

하락한 업종은 인터넷(-0.90%), 금융(-0.81%), 운송장비(-0.51%) 정도에 그쳤으며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셀트리온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다음카카오는 전날보다 1.73% 내렸으나 게임주 컴투스는 6.28% 급등했고 CJ E&M과 파라다이스도 2%대 상승률을 보였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시장 강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바이오 핀테크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기 과열로만 보기에는 미국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44포인트(0.07%) 상승한 2042.8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지난해 9월 19일(2053.82) 이후 6개월여 만의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김보배기자

중국판 코스닥 '선강퉁' 열린다

9~10월 시행 예상 증권사들 준비 속도

중국판 코스닥 '선강퉁'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강퉁이란 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개장된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이 대형종목 위주의 시장이라면 선강퉁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선강퉁 개막 시점은 올해 9~10월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리서치센터 안에 중국 증시와 채권 전문가로 구성된 '차이나 데스크'를 구성, 기업탐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선전과 상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국내 최초로 직접 탐방해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현지 증권사와 제휴해 중국시장에 대한 분석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DB대우증권도 중국 리서치와 관련한 제휴 업체 등을 통해 종목 분석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중국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차이나 데스크'를 이번 달에 '차이나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증권은 또 중국 중신증권과 전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선강퉁에 대비한 투자 정보와 자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대만계 유안타증권은 중화권에 가장 정통한 증권사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이미 해당 시장에 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후강퉁 때와 마찬가지로 선강퉁에서도 컨텐츠의 질에서 다른 증권사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유안타증권은 또 지난해 11월 선보인 '후강퉁 가이드 북'의 선강퉁 버전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해외주식 실전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주식 포털(가칭)'을 구축, 상반기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관련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 상하이 푸둥에 있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개통식'을 열고, 후강퉁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연합뉴스

하나대투증권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를 활용한 '중국본토 1등주 랩'을 통해 개인 고객의 선전증시 투자를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 중국본토 1등주 랩'의 주요 투자 대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중국본토 시장에 상장된 내수주다. 중국 본토 내수시장 1등 브랜드에 중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한다. 이 상품은 지난 2013년 10월 출시한 '하나 중국1등 주랩'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된다.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종목군을 선정하며, 운용부서인 전략랩운용실과 리서치센터로 구성된 운용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투자전략·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이밖에 유안타증권은 선전 증시 주식에 70%를 투자하는 '선강퉁 선취매펀드'를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최우수 파생금융기관' 선정

시장발전 기여 인정

NH투자증권은 파생시장협의회가 주최한 제10회 KOSDA 어워즈에서 '최우수 파생금융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활성화에 앞장선 점, 차별화된 신상품 개발과 출시를 통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지난해 ELS, DLS를 약 15조원 가량 발행해 발행액 기준 업계 1위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끌어냈고 파생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 받았다.

특히 NEW HEART형 ELS의 경우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파생시장협의회(KOSDA)는 국내 파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매년 국내 파생상품시장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특히 상품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24일 서울 ... 에서 열린 제10회 KOSDA Awards 시상식에서 최우수 파생금융기관상을 수상한 NH투자증권 정자연 IC사업부 대표(사진 오른쪽)가 알렉스 박 파생시장협의회 회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자연 IC사업부 대표는 "저금리 금융환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인적·물적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법규·규정 등 제도적 보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이학수법' 국회의원 114명 "찬성"

본지 전수조사… 野 모두 찬성땐 '과반 근접'

일명 '이학수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114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민사적 절차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학수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본지가 의원들에게 개별 조사한 결과다. 이는 법안 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 104명과 설문에서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6명), 이중처벌 등 각종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의견을 밝힌 의원(4명)을 더한 수치다. 범야권 표가 결집한다면 최대 146명(재적 294명 중 과반148명)의 찬성표가 나올 전망이다. 이학수법 처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법)은 50억원이상 배임·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로부터 생긴 재산이나 보수를 범죄자 또는 제3자로부터 강제 환수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실제 대법원은 2009년 4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영선 새정연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삼성SDS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약 2조2000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지가 23~24일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학수법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새누리당 소속 김모 의원 등 2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모 의원 등 4명 등 6명이 찬성했다.

법안 서명 의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국회의원 114명이 찬성의사를 사실상 밝힌 상태다. 법안제출 당시 서명한 의원은 104명(새누리당 4명, 새정연 99명, 정의당 1명)이다. 실제 설문 결과 어느 의원 대다수가 찬성 의사를 피력했다. 주기적으로 본지 취재결과 찬성의사를 밝혀온 의원이 6명이다. 또 이학수법이 삼성SDS에 대한 처분적 법률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소급입법, 이중처벌 등 위헌 논란에 대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의견으로 분류되는 강모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4명이다.

여기에 법안에 서명치 않고 본지 취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를 비롯, 전병헌 정청래 유승희 최고위원 등 새정연 의원 27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4명은 법안 처리에 가세할 경우 찬성 의원은 146명에 이른다. 과반수까지 2명이 모자라는 것이다.

'판단보류' 입장을 밝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개별의원 입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한 사례는 보기 힘들다"며 "대기업의 문제점을 짚은 이 법안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다. 또 삼성그룹의 설득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학수법의 입법화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실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국민에게 이학수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는 내달 23일 이학수법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의 로비전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우리 의원실에는 연락이 안 오지만 다른 의원실에 알아보니 삼성에서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의 대대적인 로비전이 시작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그룹차원에서 이학수법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일부 언론사 간부를 미국 하와이로 초대해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송병형기자 sbh@metroseoul.co.kr

삼성전자, 패션 업계 협력… 디자인 혁신성 강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신제품 디자인 혁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패션 업계와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 시작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부터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연데 이어 지난 25일 '2015 F/W 서울패션위크'가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갤럭시 S6 퍼스트 룩' 쇼를 열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S6 퍼스트 룩 FIRST LOOK' 쇼에 참여한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갤럭시 S6 와 갤럭시 S6 엣지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번째 박승건, 세번째 이주영, 다섯번째 계한희, 여섯번째 한상혁, 열한번째 J KOO 디자이너

이 날 행사장에는 미디어, 패션계 인사, 소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인 한상혁, 박승건, 이주영, J KOO, 계한희는 갤럭시 S6 시리즈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신비롭고 깊이감 있는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개성 있는 스테이지를 연출했다. 디자이너들은 각각 화이트 펄, 골드 플래티넘, 그린 에메랄드, 블랙 사파이어, 블루 토파즈 등의 5가지 컬러로 스타일링한 5개의 런웨이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의 퀵 카메라와 무선 충전 등 새로운 기능들도 세련된 무대 연출로 표현했다. 모델들이 런웨이 워킹 중 퀵 카메라 기능으로 셀피 액션을 취하는 순간 셀피 사진이 무대 중앙의 스크린을 통해 표출됐다. 쇼의 마지막 모델이 퇴장하며는 무선 충전 패드에 '갤럭시S6'를 올려 두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illegible]기자 yjw@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中 보아오포럼서 연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아시아 지역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제14차 보아오포럼'에 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보아오포럼 이사 대표자격으로 단상에 오르는 것이다.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리는 '2015 보아오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미래비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취지로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26개국 대표가 모여 2001년 창설한 비영리 비정부 민간포럼이다.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릴 정도다.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5일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 브리핑에서 "27일 이사 교류 만찬 때 간단히 스피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평소 정리된 연설문에 맞춰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제와 내용은 현지에서 조율 중이다.

이 부사장은 "이 부회장이 중국 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포럼에 참석한다"며 "현지 상황에 따라 연설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세부일정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의 세세한 공개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관련 지난해 포럼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은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국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랑받고 중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의료·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제로 즉석연설을 하기도 했다.

LG전자 생활가전 시장 1위 전망 '흐림'

선택과 집중 필요

LG전자가 올해 세계 생활가전 시장 1위를 목표로 잡았지만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1위를 달성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도현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지난 19일 2015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목표로 "H&A부문에서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력 제품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H&A부문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고 세탁기 외 다른 제품들은 아직 글로벌 1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G전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 핵심 제품에 역량을 집중 해야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세탁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를 낸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LG전자는 25일 전세계 세탁기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전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7년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10년에는 처음으로 점유율 10%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2.4%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세탁기 시장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세탁기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와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이외 시장은 국내 중견 기업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전자가 꾸준히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정수기 시장은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등에 밀려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2009년 정수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후 최근 라인업까지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수기 시장은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로 분류하지만 렌탈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삼성전자도 한발짝 물러난 상태다. 특히 관리인력면에서도 코웨이 '코디(1만3000명)'에 밀려 렌탈시장의 특성상 시장확대가 쉽지 않다.

이에 생활가전업계 관계자는 "전체 생활가전 시장 1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LG전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안되는 정수기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접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수기 내수 시장 규모는 1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지만 기존 터줏대감인 코웨이 등을 넘어서긴 힘들 것"이라며 "정수기 시장은 제품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렌탈이라는 특수한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정수기 사업과 관련해 지목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TV와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의 실적이 너무 낮아 별도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llegible]

KT 황창규 회장, 악재 속 첫 주총… 주주 반발 예고

대규모 적자에 무배당 선언…소액주주 반발 불보 듯

KT 새노조 "황창규 각성·이석채 비자금 재수사 촉구"

KT 주주총회는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KT 시내 주주들의 이석채 전 회장의 비자금 사건 재수사와 황창규 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데다 무배당 선언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KT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KT 주총에서는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배당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다 명예퇴직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2014년 회계연도 배당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무배당은 KT가 민영화된 이후 처음이다.

KT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이 23조4215억원으로 전년대비 1.6% 하락했고 영업손실은 291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9655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KT의 무배당 정책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KT 새노조 이해관 대변인은 "KT 주총은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창규 회장 /KT 제공

게다가 KT 시내 주주들은 오전 8시30분 주총이 열리기 전 KT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관 대변인은 "최근 포스코 수사에서 드러난 일련의 과정이 이석채 전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청와대 등에 KT비리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의 올해 경영행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황 회장의 취임 1년간 현장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혁신이 없었고 이 전 회장이 하던 방식 그대로 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황 회장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KT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조직 안팎의 이목은 '1등 KT'를 외치고 있는 황 회장이 올해 실적 회복을 위해 어떤 경영비전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5대 미래융합 서비스를 제시했다. 스마트에너지, 통합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5대 분야에서 통신과 이종 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었다.

KT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선 통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유선부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용화한 기가인터넷과 기가 UHD TV 사업을 확대해 가입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기존 통신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5대 미래융합 서비스에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숙기자 happyjsk@metroseoul.co.kr

SKT, 장기 미사용 선불전화 '직권해지'

SK텔레콤이 고강도 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장기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해지 조치를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 6개월간 전국 유통망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동전화 회선 관리에 대한 엄격한 내부 기준과 이용약관에 따라 지난달까지 장기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 회선을 직권해지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2015년 2월말 기준 SK텔레콤의 누계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36만5019명 감소한 2835만6564명(알뜰폰 가입자 포함)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상품·서비스 중심 경쟁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본격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이 여전히 소모적 시장점유율 경쟁에 매몰돼 있는 점에 대해 1위 사업자로서 반성하고 책임감을 갖는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무의미한 경쟁에서 탈피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객가치 극대화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SK텔레콤이 선도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숙기자

아시아나항공, S7항공 코드쉐어 확대 시행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29일부터 러시아 S7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 시행한다.

아시아나는 S7항공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공동운항하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구간에 새로 아시아나의 △인천~하바로프스크 △인천~사할린 구간과 S7항공의 △인천~블라디보스토크 △인천~이르쿠츠크 △인천~노보시비르스크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편도) 구간을 추가해 공동운항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인천~노보시비르스크 노선은 S7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는 계절 노선이다.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아시아나의 블라디보스토크~인천 구간과 연계해 판매될 예정이다.

/이의철기자 esn1ee@

BMW 그룹 코리아 임원승진 인사

BMW 그룹 코리아와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는 4월 1일부로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원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BMW 그룹 코리아〉

전무 ▲ 한상윤(세일즈 행괄) ▲ 토르벤 카라섹(Torben Karasek, 재무총괄) ▲ 이지훈(마케팅 행괄) ◇ 상무 ▲ 전병익(애프터세일즈 행괄) ◇ 이사 ▲ 박혜영(홍보 행괄) ▲ 정상현(딜러 개발부 ▲ 장영아(재정부) ▲ 김현호(딜러 비즈니스 컨설팅) ▲ 고흥범(구매 및 행렉외제 개발 및 관리)

■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 상무 ▲ 박창두(금융 오퍼레이션 총괄) ▲ 문원열(알게라 사업본부 총괄)

/이의철기자

LGU+, 차량 수집정보 실시간 서비스

스마트 카 서비스 'TiA' 출시

LG유플러스는 신아주그룹 계열 폭스바겐 공식딜러 '아우토플라츠'와 함께 자동 차량 진단은 물론 운행·맞춤형 정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LTE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 카 서비스 'TiA(Telematics in Athena)'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들과 달리 LG유플러스의 고품질 LTE망을 통해 차량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송, 이용자의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차량 내에 LTE 모뎀과 첨단 융합 센서 등이 탑재된 단말기(VID)를 장착하면 ▲연비·연료 사용 현황 ▲차량 사고 고장 ▲배터리·소모품 현황 ▲주행 시간 등 차량 운행 정보 ▲위치 정보 등 차량 정비나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특히 배터리, 엔진오일 등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은 앱 내에서 알림을 통해 교체 시기와 정비 주기를 미리 알려줘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적정 시점에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차량 이상징후 감지 기능으로 고장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

분당 폭스바겐 아우토플라츠 전시장에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TiA' 서비스를 시연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우선적으로 'TiA' 서비스를 공동 투자 개발한 신아주그룹 계열 폭스바겐 공식딜러 '아우토플라츠'에서 판매하는 폭스바겐 차량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향후 국산과 외산 전 차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숙기자

KT-한전, 빛가람 에너지 ICT 융합센터 공동개설

KT는 한국전력공사와 25일 KT 전남 나주지점에서 '빛가람 에너지 ICT 융합센터'를 공동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에너지분야 특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축모델이다. 에너지분야 개발사와 제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략수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는 융합센터를 통해 LTE AMI, 스마트존 전기차 충전, 신재생에너지 등 ICT-전력 융합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혁신기술 연구 개발 및 벤처육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KT는 KT-MEG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서울시 EV카셰어링 사업참여 등 스마트 에너지 사업 경험과 GiGA 인프라, GiGA 플랫폼 기반과 한전의 전력망 운영 노하우를 접목해 빛가람 지역에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ICT와 융복합 신사업 모델 개발로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을 활용할 나주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화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에너지밸리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윤경림 전무는 "빛가람 에너지 ICT융합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KT와 한전의 상호 역량을 융합해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이 최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숙기자

中시장 침체… 금호타이어 휘청

한국타이어, 성장세 둔화
넥센, 중저가시장 과포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중국의 성장 둔화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천연고무 등 원재료 값 안정으로 타이어 업계의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지의 주요 타이어 시장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3사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중국시장 갈수록 어려워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 등 3사는 중국이 성장황금기를 이루던 2000년대 후반 중국 공장을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현지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 타이어업체들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현지 중저가 타이어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3사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타이어 물량에 중국 현지에 몰릴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5년 2분기부터 미국 전미철강노조(USW)의 제소로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제재를 시행한다. 북미 지역 수출길이 막혀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OADIAN CT8

넥센타이어의 로디안 CT8 제품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도 녹록지 않다. 중국 국영 화학업체 켐차이나는 이탈리아 타이어업체 피렐리를 8조5000억원에 인수하며 고품질 타이어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 강력한 프리미엄타이어 경쟁자가 탄생할 수 있어 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타이어 특히 지난해 매출 7.1%↓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3조436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1% 줄어들었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1년 발생한 중국 내 리콜 사태의 영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공장의 생산 비중은 전체 생산 중 37%를 차지하는데 공장 가동률은 7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여기에 중국 내수까지 어려워지면 가동률 상승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말 시작된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작년 말 종료됐지만 순차입금 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168%, 262%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중국매출이 높은 한국타이어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한국타이어의 중국 공장 생산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31.7%에 달한다. 한국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6조6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해 1998년 이후 16년간 지속된 매출 성장세가 꺾였다. 특히 중국 매출비중이 2013년 18.2%에서 2014년 16.5%로 감소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넥센타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조7587억원으로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매출이 향상됐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넥센타이어가 불안정한 중국 타이어시장의 영업환경을 이겨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넥센타이어가 주력하고 있는 중저가시장의 과포화로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넥센타이어의 1분기 매출액은 4389억원, 영업이익은 493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소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25일 서울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올 뉴 투싼' 1호차 주인공인 피아니스트 공은지씨(왼쪽)와 부친 공창선씨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 '올 뉴 투싼' 1호차 전달

현대자동차는 25일 서울 강남구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피아니스트 공은지(32)씨에게 '올 뉴 투싼' 1호차를 전달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 뉴 투싼 1호차의 주인공이 된 공씨는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음악학부 강사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다.

공씨의 부친은 현대차 '엑셀'과 '쏘나타'부터 '제네시스'까지 구매한 현대차 우수 고객으로 귀국 후 첫 차를 고민하는 딸에게 투싼을 추천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기아차, 제4회 협력사 채용박람회

현대 기아자동차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5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막했다.

행사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안종엽 동반성장위원장, 염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측에 따르면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협력사들이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을 진행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대 기아차가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부품 협력사와 정비 협력사에서 원 부자재 설비부문 협력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0여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3개 권역(수도·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만 실시했던 채용박람회 범위를 협력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개 권역(수도·충청권, 부산·경남권, 호남권, 울산·경주권, 대구·경북권)으로 세분화해 박람회에 참석하는 구직자들과 참가 기업들이 보다 쉽게 참석할 수 있게 했다.

2015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왼쪽부터)이기범 현대 기아차 협력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종엽 동반성장위원장이 참석했다. /현대기아차 제공

올해 채용박람회에서는 각 지역 협력업체들이 지방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구인·구직 정보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해당 지자체와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필기자

기아차, 2015 KBO리그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

기아자동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2015 KBO 리그(이하 프로야구) 자동차부문 후원 조인식'을 열었다.

조인식에는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과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기아차는 2012년 처음으로 자동차부문 후원사로 나선 이후 4년 연속으로 프로야구를 공식후원하게 됐다.

기아차는 공식후원사로 활동하며 ▲TV중계 가상광고, 경기장 선광판 광고, 미디어 백드롭(덕아웃 뒤 배경판) 등을 통한 광고 집행 ▲수요 경기 시구자 운영 ▲정규시즌, 올스타전, 한국시리즈 MVP 시상 등을 통해 야구팬들에게 이미지를 알릴 계획이다.

25일 서울 양재동 기아차 사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자동차부문 후원 조인식'에서 김창식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왼쪽)과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이정필기자

쌍용차, SUV 콘셉트카 XAV 렌더링 이미지 공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 www.smotor.com)가 2015 서울모터쇼에서 SUV 콘셉트카 XAV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관 스타일을 살펴 볼 수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다.

쌍용차는 오는 4월 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서울모터쇼에서 'Ssangyong Holic(쌍용차에 중독되다)'을 주제로 2310㎡ 면적의 전시관에 콘셉트카와 양산차량 총 20대의 차량을 전시할 예정이다. 프레스데이 행사를 통해 콘셉트카 XA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소형 SUV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통 SUV 이미지를 구현한 XAV(eXciting Authentic SUV)를 통해 SUV 전문기업 쌍용차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쌍용차의 브랜드 유산과 전통, 최신 트렌드의 접목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콘셉트카는 직선을 과감하게 사용한 박스형 설계를 통해 정통 SUV로서의 강인한 이미지와 더불어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초기 코란도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레트로 디자인을 기반으로 Shoulder Wing 이미지를 강조했다.

/김성훈기자 fun@

'뉴 푸조 508 RXH' 등 서울모터쇼서 亞 첫 공개

프랑스 감성을 담은 자동차회사 푸조가 내달 초 개막하는 2015 서울모터쇼에서 뉴 푸조 508 RXH, 208 T16 파익스 피크 등 2개 모델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다고 공식 수입원 한불모터스가 25일 밝혔다.

뉴 푸조 508 RXH는 도심과 비포장도로를 넘나들 수 있는 모델로 유로6를 만족하는 2.0 블루HDi 디젤엔진을 탑재해 최대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41.2kg.m의 강력한 힘과 26.1km/ℓ(유럽 기준)의 뛰어난 연비를 발휘한다.

범퍼 옆에 LED 안개등이 삼중으로 달려있어 강인한 느낌을 풍긴다는 것이 한불모터스측 설명이다.

함께 선보이는 208 T16 파익스 피크는 '구름 속의 경주'로 불리며 미국의 파익스 피크 산에서 열리는 '파익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클라임 대회'에서 역대 신기록을 작성한 모터스포츠 차량이다. 3.2ℓ V6 트윈터보 엔진이 실려 최대출력 875마력, 최대토크 90kg.m의 괴력을 뿜어낸다.

최고속도는 시속 241km에 달하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인 제로백은 단 1.8초에 불과하다.

/김성훈기자

SK네트웍스, 시내면세점 출사표… 패션 시너지 기대

中 진출 오즈세컨·루즈앤라운지 호재 전망

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가 시내면세점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성공할 경우 SK네트웍스의 패션 사업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SK네트웍스는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내면세점의 입지로 중국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곳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신촌·홍대 등 서쪽 지역과 SK 건물이 위치한 도심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다.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의 여행 트렌드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

SK네트웍스가 시내면세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의 직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종훈 사장은 최근 전사 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선도적인 차세대 면세점 모델을 개발해 사업성장과 국가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워커힐 면세점은 전체 매출의 70%가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 VVIP를 위한 시계 보석 전문 부티크를 선보이고 중국인 고객 전용 서비스 인력을 육성해 배치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 왔다. 게다가 중국에서 워커힐이 럭셔리한 이미지로 인식돼 있어 면세점은 관광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3년간 면세점 운영을 통해 구축한 브랜드 확보와 재고관리 역량, 중국 고객 대상 전문서비스,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류와 연계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시내 면세점에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YK's Pick을 시내 면세점에도 선보이는 등 차별화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YK's Pick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스타일리스트 정윤기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나서 선보이는 편집숍. 역량있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류와 더불어 유입되고 있고 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유통 채널로 면세점이 주목받고 있다"며 "면세는 특히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권을 따기 위한 유통 기업들의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가 시내면세점을 유치할 경우 패션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워커힐 면세점에는 타미힐피거, 루즈앤라운지, 오즈세컨 등의 자사에서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오즈세컨과 루즈앤라운지가 중국인 관광객 매출이 높은 면세점의 덕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는 오즈세컨이 80여 개 매장을, 루즈앤라운지가 3개 매장을 운영중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시내 면세점을 유치할 경우 패션 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희기자 ksh@metroseoul.co.kr

롯데마트, 와인장터 진행 롯데마트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30개점에서 와인장터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와인장터에서는 5000원~70여만 원 균일가 와인제품부터 수입한정판 와인까지 총 600여 종, 10만병을 준비했다. /롯데마트 제공

온라인몰 '간편결제' 도입 잇따라

'액티브X' 대체 간소화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간소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와 온라인몰 등에서 널리 쓰여 온 액티브X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 보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국제 웹표준에 맞지 않고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지 않는 등 단점이 많아 온라인 결제 시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로 꼽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각 온라인몰은 카드사가 액티브X를 대체할 새로운 exe 방식 보안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이를 그대로 결제 과정에 적용한다.

이와 별개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 업계는 이미 액티브X가 필요없는 다양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쓰고 있다.

G마켓·옥션·11번가는 액티브X 설치가 필수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주요 소셜커머스의 PC 웹사이트도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몰 업계는 크롬 등 타 브라우저 점유율에서 익스플로러를 따라잡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 액티브X 기술이 없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오픈웹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브라우저를 써도 화면이 같고, 브라우저에 따라 입력과 사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른바 크로스 브라우징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에는 PC 대신 모바일 거래가 주류로 떠오르는 추세에 발맞춰 각 업체는 모바일 환경에 알맞은 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이달 초 자체적으로 개발·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티몬페이'를 내놓았다.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4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도입했다. 11번가는 2015년 5월부터 모기업 SK플래닛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핀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한 웹페이지 내에서 모든 결제를 마칠 수 있는 SK플래닛의 새 간편결제 시스템 '시럽페이'도 11번가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

CJ제일제당, '해찬들' 제품 라인업 확대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재선)은 해찬들의 스페셜 패키지 출시와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찬들은 4월 중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잡곡인 현미, 보리를 활용한 '현미로 만든 고추장'과 '보리로 만든 고추장'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구마로 만든 고추장, 귀리로 만든 고추장 등도 현재 연구 개발 중이다.

봄 스페셜 패키지 고추장 제품도 한정판으로 출시됐다. 패키지 전면을 광고 면으로 활용해 '고추장에도 봄이 온다'는 테마를 1kg, 2kg짜리 제품에 적용했다.

해찬들 시즌별 스페셜 패키지는 브랜드 슬로건인 '자연의 시간표대로'를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링크 아즈텍에 따르면 고추장의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은 지난해 약 1600억원대 수준의 규모다. 해찬들은 지난해 누계 기준 시장점유율 47%로 1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2위(36%)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롯데百, 성희롱 핫라인 개설

롯데백화점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 캠페인 '여(女)보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우선 성차별이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여성전용 '윤리 핫라인'을 개설해 여성 상담원이 신고를 받도록 했다.

전국 49개 점포에서는 각각 '여성 인재 현장간담회'를 열어 여성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고 조직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기존에 연 1회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로 늘릴 예정이다.

풀무원, 덮밥용 요리토핑 출시

풀무원식품(대표 이효율)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밥에 얹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볶음김치 요리토핑' 3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볶음김치 요리토핑은 베이컨김치 요리토핑, 불닭김치 요리토핑, 돼지고기김치 요리토핑 등 3종이다.

익은 김치와 베이컨, 불닭, 돼지고기 등이 주재료인 이 제품들은 덮밥뿐 아니라 김치 유부초밥, 김치 김밥, 김치 퀘사디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더페이스샵 쿨링 선블록 출시

더페이스샵은 쿨링 선블록 '내추럴 선 에코 아이스 에어퍼프 선 SPF50+ PA+++'을 출시했다.

'아이스 에어퍼프 선'은 피부 온도를 바르는 즉시 -5℃ 이상 자감게 식혀주는 신개념 쿨링 선블록이다. 외부 임상실험 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입증 받았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자외선 차단 및 주름 개선, 미백의 3중 기능성, 자연스럽게 톤을 보정하는 메이크업 효과까지 5가지 기능을 모두 담은 제품이다.

이번엔 '특판채권'이다.

대신증권 특판 채권
시장금리 사상최저 시대
한국은행이 지급보증하는
통안채권을 특별판매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드리는
대신증권 특판 채권으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채권
특판
RP
조건별 한도
신규 고객
비 고
당사 신규고객의 계좌개설과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외식테마파크 건설로 제 2도약”

[인터뷰] 최종만 전한 대표

한류 열풍으로 한식(韓食)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한식 세계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기반을 닦아온 기업이 있다. 바로 토종 외식기업 전한이다.

1987년 설립된 전한은 한식 브랜드 강강술래를 비롯, 일식점 스시유와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한을 이끌고 있는 최종만(51·사진) 대표이사는 업계에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로 통한다. 동아건설 구조조정팀장, 호반건설 대표이사를 역임한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통'이다. 최 대표는 주택시장 불황에도 누적 분양률 90%를 달성하며 호반건설을 국내 최고 건설 업체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런 그가 지난해 외식업계에 발을 디디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 국내 최대 외식테마파크 건설

최종만 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 외식 테마파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건설과 외식을 접목한 전한의 야심작인 강강술래 고양 늘봄농원점이다.

최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식과 개발사업이 접목된 신개념의 개발 프로젝트인 늘봄농원점의 외식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이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년에 한 곳씩 전국 총 10~15곳에 가족중심의 외식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 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최종만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썬더버드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플로리다주립대학교대학원 부동산개발 및 금융학 석사 △1990.1 (주)동원F&B 기획실 근무 △1997.12 (주)동아건설 구조조정팀장 △2002.8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Senior Programme Manager △2009.6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2014.5~(주)전한 대표이사

강강술래 고양 늘봄농원점은 지난해 진행된 2단계 공사에서 총 12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갈비구이 전문관으로 탄생됐다. 1만2000평 규모로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건물 2~4층은 한우의 양념갈비 등을 맛볼 수 있는 구이전문관이다. 1층은 갈비탕, 해장국, 냉면 등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식사전문관, 지하 1~2층은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들어서는 등 총 6층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총 140억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 대표는 "유기농 한식테마관과 전통 주점, 스시 뷔페, 커피숍, 7080 라이브 카페 등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라며 "연간 매출 규모가 2015년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성이 최종 완료되는 2017년에는 단일 매장에서 하루 매출 1억3000만원, 연간으로는 약 45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 대륙 입맛 사로잡는다"

최종만 대표는 국내 외식업계의 동반 침체 속에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해외시장 공략이다.

그는 "외식업은 미래가 있는 사업으로 너무 많은 업체가 진출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현재 외식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글로벌화가 됐는가가 관건"이라고 해외시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대표의 첫 타깃은 중국 시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강강술래에서 전한으로 사명도 바꿨다. 전한(全韓)은 해외시장, 특히 중국을 겨냥해 바꾼 사명이다.

전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신한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글로벌 외식문화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그는 중국 시장에 대해 "중국은 객단가(소비단가)가 높다"며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원가가 저렴하다.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한은 지난 23일 중국 단둥시에서 현지 가맹점 1호점인 강강술래 시대오성점을 오픈했다. 연면적 약 450평에 260석 규모의 4층 단독 건물로 인근 1만 가구 이상의 고급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중상류층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한국적이면서 세련된 분위기와 뛰어난 맛, 친절하고 신속한 한국식서비스가 현지 중국인들과 교민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첫날 단하루 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의 유명 호텔체인과 연계해 호텔 내 한식당 형태로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새로운 도전

풍부한 현장 실무경험과 업무 능력이 검증된 최종만 대표는 외식업종의 불황 속에서도 오히려 담담하다. 남보다는 다른 '차별화 전략' 덕이다.

그는 "강강술래는 직영 매장이기 때문에 평당 500~800평 규모로 초기 투자 비용만 50억원 정도 들어간다"며 "투자 회수기 기간내 접근하기 힘들지만 오히려 생각하면 이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퀄리티인 가격에 많이 주는 것"이라고 차별화 전략을 설명했다.

한식 열풍이 일면서 전한도 한때 한식뷔페 사업을 고민했었지만 대기업이 한식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최 대표는 "(소상공인들은) 자본이나 인력에 있어 대기업이 밀릴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의 계열을 통한 사업 확장이 우려스럽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한은 올해를 제2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창립 27년째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5개의 대형 직영매장을 신규로 열고 해외 매장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또 그동안 로드숍 중심의 직영매장으로 운영해 온 강강술래를 몰인숍(mall in shop),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매장을 다양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김근하기자 hareh1@metroseoul.co.kr

'건설통'서 '외식통'으로… 신개념 외식문화 선보인다

강강술래 고양 늘봄농원점.

(주) 전한은

전한은 한식 전문점 강강술래를 비롯해 삼성동에 일본 정통 에도마에 스시전문점 스시유, 헤어&메이크업숍 작은차이를 직영하고 있다. 육류 유통가공업체인 뜨슬러와 식자재유통전문업체인 프레시라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역삼과 서초, 신림, 삼계, 여의도, 홍대, 청담, 시흥, 늘봄농원점 등 서울과 수도권에 9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강술래는 연간 매출액 규모가 8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SSG푸드마켓 등을 통해 한우사골곰탕과 갈비맛 최고기탕포송 판매중이며, 오픈마켓에선 한우떡갈비, 한돈너비아니, 모짜렐라돈가스 등 다양한 HMR(가정간편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도 갈비탕, 육개장 등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해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치주질환 심하면 치매·뇌졸중 위험"

대한치주과학회·동국제약 '제7회 잇몸의 날' 행사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는 지난 24일 '제7회 잇몸의 날'(3월 24일) 주간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뇌혈관질환과 치주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대한민국 PQ(Perio-Quotient)지수 변화 현황 공개와 함께 생애전환기(만40세) 구강검진 항목에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검진 을 제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효정 교수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계, 특히 65세 이상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이효정 교수는 미국의 건강영양조사를 근거로 측정된 치주염의 정도와 뇌졸중 발생 유무와의 관계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치아가 적을수록 치주질환에 대한 이환 정도가 심할수록 뇌졸중의 경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계, 특히 65세 이상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과 치주질환의 관계를 살펴봤다.

2018년까지 9년간 진행중인 '한국인의 인지노화와 치매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중간 평가한 분석결과에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거나 틀니 등으로 저작기능이 약할수록 전두엽 기능(계획 실행 집중 주의 억제능력), 기억력, 시공간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교수는 "뇌혈관질환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더 나아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주질환의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한치주과학회 김남윤 이사는 2013~2015년 최근 3년간의 PQ 지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생애전환기(만40세)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에 치과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검진 을 포함시킬 것을 제언했다.

한편 제7회 잇몸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당신의 잇몸 건강한가요?' 라는 대국민 잇몸 건강 캠페인과 '잇몸의 날' 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한양여자대학교에서는 대한치주과학회와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 임직원들, 사랑봉사단이 함께하는 재능기부활동,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도 진행됐다.

대한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은 "치주질환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전신질환과 치주질환과의 관계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치주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green@metroseoul.co.kr

신학기 증후군 '영양 간식'으로 날리자

새 학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3월, 평소와 달리 통증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바로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겪는 '신학기 증후군' 때문이다.

신학기 증후군을 단순히 꾀병이라 여겨 아이를 다그친다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져 학습이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학기 증후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영양 간식을 챙기는 것이다.

사조대림의 '사조연어'는 100%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를 사용해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된 연어의 영양을 그대로 담아 낸 제품이다. 성장 촉진을 돕는 비타민 B와 면역체계 강화에 효과적인 비타민 D가 함유돼 성장기 아이들의 간식으로 안성맞춤인 식재료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에 활용하면 신학기 스트레스를 날릴 간편 영양 간식이 완성된다.

대상FNF종가집에서 출시한 '데이즈 떡볶이' 2종은 합성보존료, 합성착색료, 합성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국내 HACCP 인증을 받은 '쌀떡볶이'다. 떡볶이의 기본이 되는 양념을 자극적이지 않게 만들어 아이들 입맛을 돋우기에 안성맞춤이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만 6세 이상의 초등학생을 위한 홍삼과즙음료 '아이키커 뉴튼'을 출시했다. '아이키커 뉴튼'은 초등학생들의 성장을 고려해 홍삼함량과 1회 음용량을 늘렸다. 또한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현미배아발효추출물 등을 강화해 스트레스로 소화 장애를 겪는 아이에게 좋다.

복음자리가 출시한 '자연에서 온 과일칩' 3종은 저온건조 방법을 적용해 과일 본래의 새콤달콤한 맛을 살린 건조과일칩이다. 첨가물 없이 과일로만 만들어 바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과일의 영양소와 풍미는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어린이 인기 영화 '마다가스카'의 동물 캐릭터를 패키지에 접목시킨 '마다가스카 소시지'를 선보이고 있다. 나트륨 함량을 25% 낮추고 뉴질랜드산 크림치즈를 사용해 고소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 제격이다.

해외 직구 다이어트식품 유해물질 검출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와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식품 등 422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6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리비맥스(Libimax) 홀리고어트위드(Horny Goat Weed)와 같은 성기능 개선 제품 47개에서는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이나 최음제로 사용되는 이카린이 검출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목화 솜털 마스크 시트

네이처리퍼블릭(대표 정운호)은 100% 목화 솜털 마스크 '리얼 프레시 마스크 시트' 10종을 출시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목화 솜털을 사용한 장섬유까지 소재를 다양화해 출시하게 됐다. 장섬유는 목화씨 표면의 부드러운 솜털을 가늘고 길게 뽑아낸 것으로 수분 흡수성과 보유력이 뛰어나며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돼 에센스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페브리즈 아로마 쥬얼 2종

페브리즈는 '페브리즈 아로마 쥬얼'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페브리즈 아로마 쥬얼'은 '에메랄드 브리즈' '자수정 바닐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에메랄드 브리즈'는 과일 향을 중심으로 상쾌하고 시원한 향이 특징이며, '자수정 바닐라'는 바닐라 향 중심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향기를 선사한다.

롯데리아, 보조배터리 2차 판매

롯데리아(대표 노일식)가 지난 2월 큰 인기를 끌었던 도리에몽 보조배터리를 27일부터 일고 되는 매장을 시작으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2차 판매되는 도라에몽 보조배터리는 기존 1차 제품에 비해 디자인과 색상이 변경됐다.

색상은 블루와 골드 2가지다. 판매는 1개의 세트 또는 콤보 팩 메뉴 구매시 1인당 2개의 휴대용 도라에몽 배터리 제품이 할인된다.

123RF
세계 50개국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구매율링, 클립 등
고객센터 1544-4225

SH공사 변창흠號, '혁신' 닻 올렸다

주거복지·도시재생 '두 마리 토끼' 노려

SH공사가 조직 혁신을 통해 서울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변신한다. 변창흠 사장은 취임 3개월 만에 민간과 차별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청사진에는 앞으로 SH공사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과 세부계획이 모두 담겨있다. SH공사는 촘촘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 안심 주거서비스, 건전한 재정기반,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혁신 등 5개 분야에 걸쳐 14개의 혁신을 이뤄낼 예정이다.

◆공동체 시설·주택, '10분 동네' 실현

가장 먼저 내세운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11개 주거복지센터를 4개 권역별 주거복지단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치중하던 것을 주거비 지원, 민간주택 관리, 주거지원까지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또는 공공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10분 동네' 실현을 위한 공동체 시설도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정책과 주거정책에서 배제됐던 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1만 가구의 공동체 주택도 공급한다.

당장 내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 2500가구, 노숙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활주택을 300가구, 민간주택 임차형 주택은 400가구, 민간 비영리조직의 사회주택은 1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SH공사 측은 "민간토지·시유지·구유지 등을 활용해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 확보 방식도 다양화하겠다"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연합뉴스

◆디벨로퍼로 변신…리츠 설립키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의 변신을 예고했다.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서울의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도시경쟁력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먼저 창동 삼계 복합문화공연장 조성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300㎡ 내외의 공공 자투리땅을 이용해 부족한 시설을 공급한다. 또 열악한 주거지를 정비하고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자발적인 소규모 주거재생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공사 내부에 도시재생계정을 별도로 마련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을 관리키로 했다. 또 도시재생 리츠(REITs)를 설립해 민간자본과 연기금 등 공공재원의 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주거복지·도시재생 지역전문가 5000명 양성도 약속했다.

◆시민 기대 부응코자 투명성 재고

안심 주거서비스 분야에선 '하자 제로' 주택 건설을 실현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하자관리 전담직원을 3배 충원하는 서비스혁신처 신설을 완료했다. 여기에 하자관리 대형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입주 시 미재리 하자 비율이 10%를 넘으면 부적격 업체로 선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긴급보수비용 100억원도 편성한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0분 내 응급조치, 3시간 내 복구, 3일 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는 '3·3·3 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SH공사는 민간자금 유치, 시유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재원 조달을 다양화해 2018년까지 부채도 3조원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부정·비리를 근절하는 '원아웃제'를 실시하고, 사장·감사·노조위원장 간 핫라인을 구축해 임직원의 고충처리 해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변창흠 사장은 "서울시민과 약속하는 혁신안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로 변하여 최고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ssol@metroseoul.co.kr

같은 재건축 호재? 강남 줄고 강동 늘어

아파트 거래… 실수요자가 판도 바꿔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같은 재건축 호재에도 강남·강동구에서 거래량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줄고 강동이 늘었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2만5108가구로 지난해 1분기(1~3월)동안 거래된 2만2856가구보다 2252건 늘었다.

강남과 강동의 재건축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전세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전세 물량이 월세로 급격히 돌아서며 전셋집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도 세입자의 매매전환을 부추겼다.

눈에 띄는 점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강남구 아파트 거래가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재건축 호재를 맞고 있는 강동구에서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올랐다.

실제 강남구는 올초부터 25일 현재까지 158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성사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212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479건 늘었다. 올해 현재까지 1660건의 거래량을 보인 강동구는 강남구를 크게 앞섰고 3월 말까지 열흘 수가 아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강동구의 아파트 거래 강세는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대비 2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0.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0.55%나 상승하며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강남구는 0.23%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동구는 0.16% 상승했고 강남구에서 0.29%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같은 재건축 호재더라도 강남의투자수요보다는강동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거래를 이끌고 있다"며 "강동구는 현재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매매전환수요 즉 실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강남구 투자자들은 지난해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한차례 움직였으나 지금은 주춤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는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가격 오름폭에 있어서도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

SK건설, 공정거래 이행 및 파트너 동반성장 지원 약속 SK건설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지 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형수 SK건설 PCS 부문장(오른쪽), 서권수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이 공정거래 이행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신개념 스트리트상가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부상

지하철 34m '초역세권' 유동인구 하루 최대 40만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가 대한민국 최고 상권인 강남역에서도 우위를 선점한 스트리트형 상가로 주목 받고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개방감이 높고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조기 분양률이 높고 공실률이 낮아 입점인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각광받는 투자처로 정평이 나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다.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만 116개에 이른다. 7개실의 입주민 고정수요와 2만여 명의 오피스타운 상주인구, 주말 최대 35만~40만 명의 유동인구를 갖췄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투시도.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 기법을 토대로 설계해 고객 유도성을 높였다. 또 1층과 2층은 다양하고 넓은 데크형 외부공간을 확보했다. 고객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상인에게는 쾌적한 영업환경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강남역 1번 출구가 불과 34m 거리다. 또 약 40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유지관리비 절감 수축열 시스템 ▲친환경 LED조명 등이 적용된다. 사용성을 극대화하면서 비용도 아낄 수 있다.

3월 입주 예정으로 빠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마련돼 있다. 문의 02-553-3880

/이현진기자

"악역 이제 그만! 차기작은 멜로"

영화 '살인의뢰' 박성웅

박성웅(42)이 또 다시 센 캐릭터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황제를 위하여' 개봉 당시 만난 그는 멜로와 코미디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위트 있는 말로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모습도 영화 속 센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박성웅은 지난 5일 개봉한 '살인의뢰'(감독 손용호)를 "마지막 악역이라고 생각하며 찍은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극중에서 연쇄 살인마 조강천 역을 맡은 그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악마에 가까운 사이코패스 캐릭터로 다시는 없을 악역 연기를 펼쳤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람을 죽이고 죄의식은 물론 감정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조강천은 박성웅이 그동안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무섭고 센 캐릭터다.

작품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없지는 않았다. 대본은 마음에 들었지만 연쇄 살인마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걸렸다. 연이은 센 캐릭터라는 점이 부담

악마 가까운 사이코패스 캐릭터
'센 이미지' 마지막 생각으로 도전
악역 모든것 보여줘 아쉬움 없다

됐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전과는 또 다른 '센 캐릭터'라는 점이었다. 조폭이나 건달이 아닌 사이코패스 살인마는 처음 해보는 역할이라는 점도 배우로서 그의 마음을 끌었다.

연기하기 쉽지 않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그는 최대한 단순하게 캐릭터에 접근했다.

"조강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안 굴렸어요. 조강천이 초콜릿을 먹는 장면이 참 얄미웠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그 장면을 찍을 때는 그냥 초콜릿이 진짜 맛있다는 생각만 했어요(웃음). 취조실에서 태수(김상경)에게 두들겨 맞다가 끌려 갈 때 웃을 때는 가능한 순수하고 해맑게 웃으려고 했어요. 촬영 당시 1주일 동안 보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며 웃었죠."

대사가 많지 않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 현장검증을 하던 조강천이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시민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가는 장면은 그런 고민이 녹아든 애드리브였다. 조강천이 지닌 캐릭터의 압도감은 샤워장에서 싱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펼치는 액션에서 절정을 보여준다.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어 18시간 동안 촬영한 이 장면은 박성웅 스스로도 가장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만큼 만족하는 '살인의뢰'의 하이라이트다.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극 후반 병원에 이송된 조강천이 경찰을 살해하고 도망가는 신이 그랬다. "영화에는 편집이 됐지만 실제 장면은 정말 셌어요. 실제처럼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서너번 찍고 나니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조강천이 죽으면서 짓는 웃음이다. 박성웅이 직접 연구해 만든 표정이다. "두 가지 의미였어요. 조강천이 피해자들의 사체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죽인 거니 내가 이겼다는 것. 그리고 영화를 본 뒤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악마의 미소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악역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만큼 박성웅은 "'살인의뢰'에 대해 아쉬움은 없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제 박성웅에게 남은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배우에게 이미지 고착은 피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올해 여섯 살이 된 아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것도 지금 박성웅이 바라는 것 중 하나다. 그러나 조바심은 없다. 이미 촬영을 마친 영화 '무뢰한'과 '오피스', 그리고 촬영을 앞둔 tvN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센 캐릭터로 사랑 받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잘 맞는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힘을 뺀 생활 연기가 더 부담이 없거든요. 영화는 한 번 찍으면 오래 남잖아요. 언젠가는 아들이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코믹한 역할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장병호기자 solin@metroseoul.co.kr
사진/이홍근 미디어랩(김민주) 디자인/김미림

star bag

학교2015 여주 확정

배우 김소현이 KBS2 새 월화극 '후아유-학교 2015'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후아유'는 드라마 '학교' 시리즈의 2015년 판이다.

김소현은 왕따로 살다 하루아침에 강남 명문고 세강고등학교의 퀸카가 되는 이은비 역을 맡았다. 다음달 27일 첫 방송 예정이다.

총자매 로코 출연

배우 유연석·강소라가 종지때 신작인 MBC 새 수목극 '맨도롱 또똣' 출연을 확정했다. '맨도롱 또똣'은 '기분 좋게 따뜻한'이란 뜻의 제주 방언이다. 드라마는 제주도 레스토랑을 무대로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린다. '앵그리맘' 후속으로 5월 첫 방송.

6년 만에 연극 무대

배우 최원영이 연극 '날과 눈물과 지킬 앤 하이드'. 지킬 역을 맡았다. 6년 만의 연극 무대다. 작품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진지함과 무거움을 덜어내고 미국식 코미 특유의 희극적인 정서를 담은 코미디 연극이다. 5월 1일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개막한다. 티켓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오픈 예정.

신곡 '#BBD' 공개

가수 장혜진이 신곡 '#BBD(BeautifulBedDay)'를 25일 정오 공개했다. 장혜진 싱글 프로젝트 '오디너리' 중 첫 번째로 공개되는 곡이다. 래퍼 버벌진트가 피처링했다. 장혜진은 이별을 통해 느낀 여자의 역설적인 감정을 부드러운 목소리로 풀어냈다. 5월 8일·9일 '2015 장혜진 소극장 콘서트-아름다운 날들'로 팬과 만날 계획이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윈터 슬립' 내달 개봉

지난해 제67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윈터 슬립'이 내달 30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고 배급사 영화사 백두대간이 25일 밝혔다.

'윈터 슬립'은 터키 아나톨리아에서 호텔 오셀로를 운영하는 배우이자 작가 아이딘이 젊은 아내 니할, 이혼한 여동생 네즐라와의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진실을 포착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담은 영화다.

영화를 연출한 누리 빌게 제일란 감독은 터키 출신으로 1993년 첫 단편영화 '코자'로 칸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우작'으로 제56회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기후'로 제59회 칸영화제 국제비평가연회상을, 2008년 '쓰리 몽키스'로 제61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윈터 슬립'은 안톤 체호프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한 작품으로 인간의 영혼과 본성에 대한 이해의 탐구 과정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려냈다. 지난해 제67회 칸영화제에서 제인 캠피온 감독을 비롯한 심사위원들로부터 "완벽한 리듬의 수작" "3시간 16분의 찬란한 경험" 등의 극찬을 받았다.

/장병호기자 solanin@

이영애, 11년만에 안방 복귀

드라마 '사임당' 확정 신사임당 1인2역 연기

배우 이영애(사진)가 드라마 '사임당, 더 히스토리'(이하 '사임당')로 안방에 복귀한다. 11년 만의 컴백이다.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는 25일 "이영애가 드라마 '사임당' 출연을 확정짓고 내년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임당'은 조선시대 사임당 신씨의 삶을 재해석하는 작품으로 천재화가 사임당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을 그린다. 이영애는 극중에서 한국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강사와 신사임당 1인 2역을 맡는다. 우연히 발견한 사임당의 일기의 의문의 미인도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과거와 현대를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다채로운 연기로 그려낼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기획 단계부터 신사임당 역은 이영애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영애의 고풍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와 사임당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초 방송을 목표로 사전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영애의 한류 소식으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주요 드라마 관계자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동시 방영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드라마 '사임당'은 '얄개이자' '두 번째 프로포즈'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등으로 여성 시청자의 호응을 받았던 박은령 작가가 집필한다.

이영애는 2004년 MBC 드라마 '대장금' 이후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다.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가 마지막 작품이다.

'사임당'은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상파 편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방송가는 SBS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캐스팅 작업을 마친 뒤 오는 6월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다.

/서량원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희철 "마음만 먹으면 패션 1등"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KBS 2 '어 스타일 포 유' 최고 패셔니스타에 도전한다.

'어 스타일 포 유'는 김희철·카라 구하라·씨스타 보라·EXID 하니 네 MC가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패션 프로그램이다.

25일 청담동에 있는 한 연회장에서 열린 '어 스타일 포 유' 제작발표회에선 네 명의 진행자 중 스타일 성장이 가장 더딜 것 같은 멤버를 뽑는 시간이 마련됐다.

세 여성 MC 모두 "김희철"을 뽑았다. 보라는 "김희철 만의 독특한 취향이 있다. 그런데 독특한 패션보다는 일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이유를 들었고, 구하라는 "독특하다. 일상적인 남자 패션으로 코디해주고 싶고 머리 길이도 잘라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철은 이날 "마음만 먹으면 내가 1등"이라며 "독특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나 다른 옷이 어울리지 않아서 안 입는 게 아니다"고 자신감을 보여줬다. 이어 "옷과 머리 모양을 바꾸면 1년 (나한테) 안 돼"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어 스타일 포 유'는 내달 5일 오후 11시55분 첫 방송된다.

/한효진기자 eonh@

이혼 소송 마친 류시원, 활동 재개

日 팬 미팅 시작으로 앨범 발매·콘서트 계획

3년여 만에 이혼 소송을 마친 배우 류시원이 일본에서 팬 미팅을 갖고 올해 첫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소속사 윈스컴퍼니는 25일 "류시원이 지난 17일과 19일 이틀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시그널 2015 류시원 팬 미팅 인 재팬' 행사를 열고 7000여 명의 팬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팬 미팅 타이틀인 '시그널'은 '소통과 교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류시원은 "한국에서 데뷔한지도 20년이 지나고 일본 데뷔도 10년이 지났다"며 "일내서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류시원은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을 휴대폰 카메라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걸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인생은 떳떳한 아빠 류시원으로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소속사 측은 "이틀 동안 총 4회에 걸쳐 열린 이번 팬 미팅은 전부 매진돼 일본에서의 식지 않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이벤트는 물론 앨범 발매와 콘서트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기자

'분노의 질주7' 내달 1일 개봉

CG 배제한 실제 액션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다음달 1일 아이맥스 개봉을 확정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은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한 뒤 전과를 사면받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도미닉(빈 디젤)과 멤버들이 최악의 상대 데카드 쇼(제이슨 스타뎀)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시리즈의 주연 배우 폴 워커가 지난 2013년 11월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작이다. 오리지널 멤버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시리즈 특유의 짜릿한 긴장감과 놀라운 액션도 만날 수 있다. 특히 3600m 상공에서 실제로 자동차와 촬영 팀이 자유 낙하하며 담은 스카이다이빙 장면을 비롯해 대부분의 액션 신을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병호기자

박지빈 벌써 21살!

5월 군입대 성인 신고

배우 박지빈(21)이 오는 5월 입대한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지빈은 친누나의 5월 결혼식이 끝난 후 5월 26일 군입대를 한다. 박지빈은 전역 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층 남자다워진 외모로 돌아와 성인 연기자로 活약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2001년 뮤지컬 '토미'로 데뷔한 후 드라마 '이산' '선덕여왕' '메이퀸'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은 2013년 방송된 '수상한 가정부'다.

/한효진기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5
Real Queen
tcast

슈틸리케호 새내기들 '무한경쟁'

지동원·김보경·정동호 "제2 이정협은 나"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 김보경(26·위건), 정동호(25·울산 현대), 김은선(27·수원 삼성), 이재성(23·전북 현대).

슈틸리케호의 새내기들이 '제 2의 이정협'이 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친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27일 우즈베키스탄, 31일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5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의 주역인 지동원은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주전으로 입지를 굳히며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지난주 오른쪽 발목에 염좌가 생겨 우즈베키스탄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부상이 가볍기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동원은 "감독님이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선발했을 것"이라며 "여기서 못 하고 소속팀에서도 제대로 된 활약을 못 하면 다시 못 돌아올 것으로 본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한동안 부진했던 김보경 역시 위건으로 이적한 뒤 7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2골을 뽑아냈다. 김보경은 "오랜 시간 대표팀에서 멀어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내가 나태했었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D-100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100일 앞두고 25일 대회 홍보단이 서울광장에 세워졌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공식 유니폼 패션쇼를 열고 대회 분위기를 고조했다. /연합뉴스

일본 J리그에서 뛰다 지난 시즌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은 측면 수비수 정동호는 수비는 물론 날카로운 오버래핑으로 공격력도 강하다. 정동호는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진수(호펜하임)를 대신해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찬스를 잡았다. 미드필더 자원인 김은선과 이재성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김민준기자 kim@metroseoul.co.kr

LPGA투어 7연속 우승 가자!

김효주 선봉 박인비·유소연 등 KIA클래식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TBC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시즌 첫 승을 거둔 '슈퍼루키' 김효주(20·롯데)가 내친김에 2연승을 노린다.

김효주는 2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의 아비아라 골프장(파72·6593야드)에서 열리는 KIA 클래식에도 출전한다.

김효주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휩쓸다가 지난해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며 올 시즌 LPGA 투어 정회원이 됐다.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이 4위까지 뛰어올랐다.

KIA 클래식에는 김효주와 함께 올시즌 LPGA 투어에 진출한 김세영(22·미래에셋), 장하나(23·비씨카드), 백규정(20·CJ오쇼핑)도 출전한다. 지난 2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올린 김세영은 이 대회에서 2승째에 도전하고, 장하나와 백규정은 LPGA 투어 첫승을 노린다.

지난주 휴식을 취한 세계랭킹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세계랭킹 6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뉴질랜드 교포로 세계랭킹 1위인 리디아 고를 비롯해 이미향(22), 이일희(27·이상 볼빅), 이미림(25·NH투자증권), 최나연(28·SK텔레콤)도 이번 대회에 나선다.

한국계 여자 골퍼들은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코츠 챔피언십에서 최나연을 시작으로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 김세영, 호주여자오픈 리디아 고, 혼다 타일랜드 양희영, HSBC 챔피언스 박인비, JTBC 파운더스컵 김효주 등 이번 시즌 LPGA 투어 6개 대회를 모두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김효주

"류현진 어깨 통증 구조적 문제없어"

시즌 초 2주간 DL 예상

왼쪽 어깨 통증을 느낀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어깨를 정밀 진단한 결과, 구조적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CBS스포츠닷컴이 24일(현지시간) 다저스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류현진이 전날 LA에서 다저스팀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와 만나 검사를 받았다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어깨에 대한 MRI 검진 결과, 2012년 류현진이 다저스 입단 당시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시범경기 텍사스 레인저스전 등판 하루 뒤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겨 소염주사 치료를 받았다. 23일 캐치볼을 시작했으나 30여개를 던진 뒤 다시 통증을 느꼈고 24일 LA로 들어가 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CBS스포츠닷컴은 "류현진은 향후 2~3주간 휴식이 필요하며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 후 부상자 명단(DL)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시즌 초반 다저스 선발진용은 돈 매팅리 감독의 구상대로 4인 선발로 유지하다 임시선발을 기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류현진의 대체 선수로는 조 윌랜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던 윌랜드는 지난 시즌 후 스토브리그에서 다저스-샌디에이고 간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윌랜드는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4경기에 나서 11⅓이닝 동안 16피안타(3피홈런) 9실점(9자책)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AOA, 프로야구 개막전 잠실 달군다

걸그룹 AOA가 2015 프로야구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AOA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15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 사전 행사에 참여한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25일 밝혔다.

AOA의 초아는 경기 시작 전 애국가를 부르고 지민과 찬미는 각각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선다. 또 AOA는 개막 축하공연으로 자신들의 히트곡 '사뿐사뿐'과 '짧은 치마'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AOA는 2012년 '엔젤스 스토리'로 데뷔해 지난해 짧은치마', '단발머리', '사뿐사뿐' 등 3연타 흥행에 성공하며 대세 걸그룹으로 떠올랐다. 특히 멤버 지민은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해 시청률은 물론 음원 차트까지 휩쓸며 맹활약 중이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5경기째 침묵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내야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시범경기에서 헛방망이를 돌렸다.

강정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 맥케크니필드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시범경기에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두 차례 삼진으로 물러서는 등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지난 13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안타를 친 이후 5경기째 시범경기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11까지 떨어졌다.

/김민준기자

태진아 원정 카지노 도박죄 인정될까

법조계 "판돈 규모·상습성 인정 여부따라 유무죄 갈려"

최근 시사저널 USA는 가수 태진아(62)와 그의 아들 이루가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바카라 게임에 억대의 고액 베팅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태진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미 삼아 일주일 동안 4차례 카지노를 찾고 결다 억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태진아와 그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태진아는 본인의 전갈을 맞아 지난달 15~22일 미국여행을 떠났으며 이 기간 로스엔젤러스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네 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총 7000 달러(약 770만원)를 땄다. 판돈은 1000~1500 달러(약 110만~160만원)다.

LA 커슬러 카지노의 총지배인인 롤송은 태진아 측과의 공개 통화에서 "태진아는 2월 15일 VIP룸이 아닌 최소 베팅액이 10 달러, 최대가 1만 5000 달러인 일반 테이블에서 1시간여동안 카지노 게임을 했다. 태진아는 2월17일 헐리우드 파크카지노 VIP룸 '골든로스'에서도 카지노 게임을 했는데 이곳의 최소 베팅액은 25~50 달러"라고 밝혔다.

억대 원정 도박설에 휘말린 태진아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법적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태진아에게 도박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는 태진아의 경우 일단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며, 일시적 오락이었다는 정황을 설득력있게 해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일단 태진아씨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카지노 게임을 했지만,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원은 속인주의 규정에 입각해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이 합법이라도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2011년 방송인 신정환은 해외에서 도박을 했지만 상습도박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두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바카라 게임에 베팅하는 등 일시적인 오락성이 아닌 도박의 상습성이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일시적인 오락성인지 상습적인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4차례 카지노를 방문해 게임을 했다"는 태진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4차례 카지노 방문이 베팅금액을 떠나 도박의 상습성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면 가벼운 형이든 무거운 형이든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베팅 금액도 유·무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이른바 '판돈' 규모를 계산할 때 실제 소지한 현금이나 도박 한번에 건 금액이 아니라 '1회당 베팅금액×도박 횟수'로 산정한다. 태진아측이 주장하는 판돈(1000 달러 내외)이 실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이고, 이를 한판에 걸고 바카라 등을 했다면 50판만 해도 5만달러, 즉 5500만원에 달한다. 이를 일시적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태진아는 "가족들과 여행갔다 재미삼아 카지노를 방문한 것"이라며 억대 베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도박의 상습성 여부도 죄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지만 베팅에 쓴 금액도 오락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베팅금액의 실제 규모를 놓고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판사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만약 도박 상습성과 더불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고액을 베팅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usun@metroseoul.co.kr

천안함 유가족들 위로 천안함 피격 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대전 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찾은 희생장병 유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인사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해고 사유"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직업이다.

그러나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다가 급기야 한 동료와는 고성으로 직언을 주고받는 일까지 발생해 시말서를 쓰기도 했다.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력평가, 민원도 조사 등을 분석해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라는 평가를 받고, 2013년 1월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장일치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유선준기자

주요 대학, 성범죄 자료 공개에 '침묵'

서울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우리 사회 성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주요 대학들은 캠퍼스 내 성범죄 자료를 공개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7개의 36% 정도인 70개교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현황 조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됐다.

박 의원은 2월 11일께 교육부로부터 78개 대학의 통계를 제출받았고 이후 2차 조사를 요청했지만 49개 대학만 자료를 추가로 내놓았다.

127개 대학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이고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40일 넘게 자료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조사대상 학교의 3분의 1 정도가 대답하지 않아 이번에도 전수조사는 어렵게 됐다.

자료를 내지 않은 70개교에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이 많고 서울 소재 여대의 경우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서울대는 답변서를 보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성범죄 관련 통계를 제출하기 꺼리는 이유는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계 제출에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대학 모두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hjc@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처음처럼
100%
처음
처럼
17.5도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